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20호 2025년 1학기(2025.03.04 ~ 2025.08.31)



# 20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음영지(솔타임즈국장)  
발행처. SOL-Time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1회 발행됩니다.

# CONTENS

- 05** 1. 우수간호 역량 강화  
**page** (1) 취업역량 및 학습역량  
- 취업 결과  
(2) 임상실무역량  
- 서울아산병원 실습  
- 삼성서울병원 실습  
- 강남 세브란스병원 실습  
- 충남대학교병원 실습  
- 서울 보라매병원 실습  
- 강남 차병원 실습  
- 국립암센터 실습  
- 용인 세브란스병원 실습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실습  
- 분당제일여성병원 실습

- 11** 2. 미래의 '후배양성에 힘쓰는 우수간호  
**page** (1) 수시  
- 2025년도 WSU 찾아가는 전공 체험  
- 전공 체험을 통한 대학 생활 미리 보기  
- 2025년도 WSU 찾아가는 교수특강  
- 2025년도 대학탐방

- 16** 3. 우수간호 이모저모  
**page** (1) 즐거운 대학 탐구생활  
- 이국종 교수 특강  
- 시험 기간 이벤트  
- 2025년도 총장기  
- 2025년도 우수제  
- 버디버디 활동  
- 세계 헌혈자의 날  
(2) 간호학과 동아리 인터뷰  
- 우수냥아치 인터뷰  
- 절주 동아리 인터뷰  
- 치매파트너즈 인터뷰  
(3) 간호학과 일상 엿보기  
- 1학년 신입생 Sol-Sup  
- 2025년도 교학 간담회  
- VS(Veritas Studium프로그램)  
- 2025년도 1학년 전체미팅  
- 2025년도 워크숍  
- 2025년도 간호학과 전체미팅  
- 2025년도 나이팅게일선서식  
- 졸업생 네트워크 활동  
- 2학년 생명 존중 프로그램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건학이념	자립 · 단정 · 독행
대학비전	THE SMART UNIVERSITY FOR THE WORLD
학과비전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리더
교육목적	간호교육과 학술연구 및 사회봉사를 위해 자아실현과 국가발전 및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간호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다.</li> <li>2. 임상추론을 통해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를 설계한다.</li> <li>3. 보건의료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최신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li> <li>4. 법적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한다.</li> <li>5. 보건의료팀 내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li> <li>6. 지역 및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리더십을 함양한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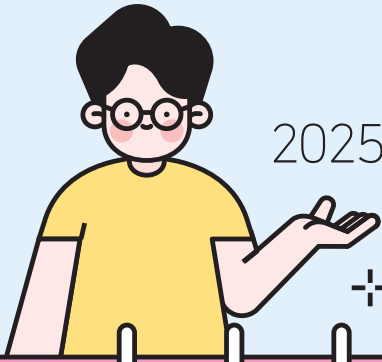
## 우송대학교 프로그램 학습성과

인재상	프로그램 학습성과
창의융합적 간호인재	PO1. 인간돌봄과 관련된 교양지식과 간호과학적 지식을 습득한다. PO6.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인구집단 건강을 관리한다.
실용적 간호인재	PO2. 임상추론을 통해 간호상황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한다. PO8. 안전과 질 향상 원리를 간호에 적용한다. PO5. 정보통신과 최신보건의료기술을 활용한다.
글로벌 간호인재	PO3. 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간호를 수행한다. PO4.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건강문제해결을 위해 보건의료팀과 협력한다. PO7. 개인과 전문직 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개발한다.



# 우송간호의 첫걸음

## 2025년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취업현황



2025년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의 신입 간호사 채용 합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복을 포함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 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병원(안암), 중앙대학교병원(흑석),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으로 다수의 학생이 상급 종합병원 이상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2025년도는 특히 의료계의 큰 어려움이 있던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졸업생 85명에서 서울의 Big5병원과 상급종합병원 15명, 국공립병원 8명, 대학병원 34명, 해외 취업 2명이 합격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계속해서 우송 간호를 빛낼 학우들의 앞날을 응원한다.

◆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



## 서울아산병원 실습 인터뷰 | 홍민아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홍민아입니다. 서울아산병원 136W 병동에서 아동간호학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병동은 소아 관련 외과계 병동으로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신경외과, 소아비뇨기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을 진료합니다.

**Q. 현장 실습하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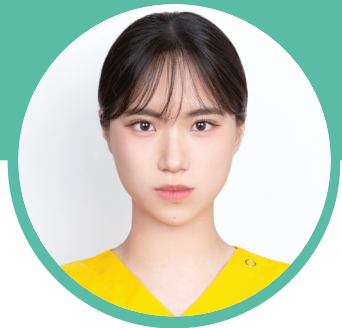
A. 수술을 위해 입원한 아동이 많은 병동이었기에, 아동의 수술 전 후 간호와 다양한 선천적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간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항문 폐쇄증 아동 간호에 대해 배우면서, 수술 후 간호인 헤가 사용법과 퇴원교육인 좌욕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보호자는 물론 대상자인 아동과도 라포를 형성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말을 못 하는 아기부터 10대 청소년까지,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매일 아동의 몸무게를 확인하여 정확한 약물 용량을 준비하고, 계산이 정확한지 5 Rights과 함께 확인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특히 아동 병동에서의 약물 계산이 적은 양의 약물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동에게는 적은 양의 약물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간호사 선생님들을 관찰하고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니,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홍민아 학생

## 삼성서울병원 실습 인터뷰 | 김태영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김태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삼성 서울병원 암 7동 병동에서 성인간호학 I 실습을 했습니다. 암 병동은 항암화학요법을 받거나 수술 전·후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으며, 통증 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의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Q. 현장 실습하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이 있나요?**

A. 실습을 통해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환자분들의 간호에서 오심·구토, 점막염, 탈모, 면역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무균술과 표준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분들의 치료 과정에 따라 투약 관리, 활력징후 모니터링, 통증 사정이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배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암 환자 간호는 신체적 치료와 같이 심리적·정서적 지지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간호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모두 환자분들의 상태에 관심을 깊게 갖고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께서 긴 치료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간호사의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실습을 계기로 앞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김태영 학생

## 강남 세브란스병원 실습 인터뷰 | 김규빈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김규빈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병동에서 실습했습니다. 소아병동은 주로 영아부터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보호자와 함께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느꼈습니다.

Q. 현장 실습하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이 있나요?

A. 교과서로 배운 내용과 실제 임상 현장은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는 체중과 나이에 따라 약물 용량이 세밀하게 달라지고, 간단한 활력징후 측정조차 아이가 낯설어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아이 본인보다는 보호자가 간호와 교육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실습을 통해 단순히 환자만이 아니라 가족 중심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호자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아이의 회복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고려하는 간호사가 되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소아병동에서 아이들과 보호자를 대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환자 중심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었고 학생 간호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김규빈 학생

## 충남대학교병원 실습 인터뷰 | 음영지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음영지입니다. 저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성인간호학 과목을 실습하였습니다. 제가 실습한 병동은 신장내과 병동으로 장기 입원하신 환자부터 동정맥루 수술만 하고 가시는 분까지 있는 환자들의 입원 기간이 다양한 병동이었습니다.

Q. 현장 실습하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이나 간호 수행이 있나요?

A. 신장내과 병동 실습을 통해 동정맥루 수술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의 간호를 배웠습니다. 특히 간호사 선생님께서 동정맥루 수술 부위를 청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새로운 임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생성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병동의 많은 환자들이 조혈제를 사용하시는데 이론으로만 알던 부분을 실제 환자에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니 간호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새롭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실습을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세심한 설명과 공감이 환자의 치료 적응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기 입원하신 환자분께서 간호사 선생님께 힘들 텐데 매일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걸 듣고 저도 환자를 항상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연 기자 / 사진 출처: 음영지 학생

## 서울 보라매 병원 실습 인터뷰 | 고지수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고지수입니다. 저는 서울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실습했습니다. 분만실은 긴박하면서도 생명의 탄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며 간호사들의 전문성과 빠른 판단력이 중요한 부서임을 느꼈습니다.

Q. 현장 실습하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이나 간호 수행이 있나요?

A. 분만 단계별 산모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간호 중재를 실제로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특히, 자궁수축 모니터링 해석 방법과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아의 심박수를 통해 건강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을 직접 보고, 체득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실습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간호사의 책임감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순간적인 판단이 산모와 아기의 생명에 직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며 긴장감을 느끼는 동시에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게 간호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임상에 대한 태도도 성숙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준 의미 있는 실습이었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고지수 학생

## 강남 차병원 실습 인터뷰 | 지민서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지민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남차병원 3병동에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3병동은 주로 부인과 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으로, 자궁근종, 자궁경부암, 난소종양 등의 수술 전·후 환자들이 많았고,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부서였습니다.

Q. 현장 실습하면서 새롭게 배운 지식이나 간호 수행이 있나요?

A. 책으로만 알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부인과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필요한 통증 관리, 감염 예방 등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레싱 교환, 수술 후 상태 관찰, PCA(자가 통증 조절기) 사용법 등을 간호사 선생님들의 시범과 설명을 통해 임상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번 실습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고, 실제 임상에서의 간호는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섬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술에 대한 불안감과 민감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환자에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체적 간호뿐 아니라 정서적 간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 역시 환자 중심의 간호를 실천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지민서 학생

## 국립암센터 실습 인터뷰 | 문희정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문희정입니다. 저는 국립암센터-유방암센터 (10B병동)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10B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유방암외과, 혈액종양내과, 자궁암외과 등 여성질환 환자분들이 주로 입원해 계신 곳입니다.

Q. 현장 실습을 하며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A. 암이 뇌로 전이되어 호스피스 연계를 기다리던 환자분들을 보았을 때 환자와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개인 매뉴얼 북을 갖고 공부하시고, 프리셉터 제도와 신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 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Q. 교내실습과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A. 교내실습은 기본 술기 연습이나 이론적인 학습에 집중되지만, 현장실습에서는 실제 환자를 직접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직접 받아볼 수 있었고, 수술 전 중단해야 하는 약물, Chest PA와 AP의 차이, 항암치료 시 피해야 하는 혈관 등 이론에서 외웠던 지식을 실제 상황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처치 장면을 직접 관찰하고 배우면서 교내실습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문희정 학생

## 용인 세브란스병원 실습 인터뷰 | 구분주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구분주입니다.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 71병동 아동 병동에서 아동간호학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71병동은 소아청소년과 환아들이 주로 입원하는 병동으로, 호흡기 및 소화기 질환, 감염성 질환부터 만성질환까지 다양한 아동 환자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병실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 가족 중심 간호가 강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항생제 투여, 수액 요법, 혈액검사, 흡인 및 산소치료 등이 주로 이루어지며,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간호가 이루어지는 병동입니다.

Q. 실습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동간호학실습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아동은 단순히 '작은 성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동은 발달 단계에 따라 증상 표현과 치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 특성을 이해한 간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환아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불안과 궁금증을 함께 해소해 주는 것이 간호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활력징후 측정이나 흡인 보조와 같은 기본 간호를 수행하면서 아동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설명과 놀이적 접근이 효과적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를 함께 고려한 전인적 간호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아동 간호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구분주 학생

##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실습 인터뷰 | 정택인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정택인입니다. 이번에 여성간호학 실습으로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10A 병동에서 실습하였고, 이곳은 산부인과를 비롯해 다양한 진료과 환자를 돌보는 병동입니다.

**Q. 실습 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산부인과와 여성 관련 진료과에서 민감한 상황에 있는 환자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간호하는 경험을 배웠습니다. 라포를 형성하며 환자분들과 신뢰 관계를 쌓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간호 활동을 관찰하고 수행하면서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판단력과 간호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앞으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감 능력과 전문성을 한층 더 깊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실습 도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A. 이번 실습 현장에서 병동 내에서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진 간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시스템을 보면서, 환자 안전과 효율적인 간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입원 기간 동안 매우 과묵하시던 한 여성 환자분이 퇴원하실 때 직접 저를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정택인 학생

## 분당제일여성병원 실습 인터뷰 | 백민지 학생 |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백민지입니다. 저는 분당제일여성병원 수술실에서 여성간호학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여성 전문 병원으로 산과와 부인과 수술을 모두 담당하는 곳이라서, 많은 환자나 산모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열 번은 넘는 제왕절개를 관찰하며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온 좋게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Q. 실습을 통해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이론을 공부하긴 했지만, 실제 수술 과정을 본 적도 없을뿐더러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많이 접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습 첫날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러나 2주간 많은 종류의 산과 수술, 부인과 수술을 관찰하며 어떤 과정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아기가 산모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경험하며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론으로는 배우지 못하는 수술실 간호사의 루틴을 보며 특수부서를 향한 관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실습 현장에 대한 느낀 점과 실습 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제왕절개 예정인 산모였는데, 아기가 구석 쪽에 횡위 자세로 있어 담당의도 아기를 꺼내기 힘들어한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소리치며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엄청 긴박했던 상황으로 기억하는데, 끝내 아기를 안전하게 꺼내며 건강한 울음소리를 듣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마음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상황임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선생님들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음영지 기자 / 사진 출처: 백민지 학생

## 진로 체험, 간호를 경험하다

대전관저고등학교 찾아가는 전공 체험



2025년 4월 16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 홍보국은 대전 관저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공 체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홍보국 학생들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세계화 비전, 교내외 실습 과정과 수업, 학과 동아리 및 다양한 학과 행사 등을 소개하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후 전공 체험 활동에서는 멸균 장갑 착용, 활력 징후 측정 등의 간호 실습 체험과 더불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짧은 문장 말하기 언어 체험, 널싱스킬 영상 시청 및 질의 응답 등을 진행하였다. 고등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흥미를 보였으며,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이지원 기자 / 사진 출처: 홍보국



## 미래 간호사를 위한 첫걸음

### 찾아가는 전공 체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 '찾아가는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등학생들에게 간호학과를 소개하고, 간단한 실습도 함께하며 전공의 매력을 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전공 체험은 단순한 학과 소개를 넘어서, 실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훈련을 받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간호학과 소개는 물론, 우송대의 특성화 트랙, 글로벌 프로그램 그리고 영어 기반 수업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특히 멸균 장갑 착용법과 활력징후(혈압, 맥박 등) 측정 시연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서로 마주 보며 질문도 던지고 체험도 같이하는 '쌍방향'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김국진 학생은 "학생들과 직접 교류하며 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은호 기자 / 사진 출처: 김국진



# 전공체험을 통한 대학 생활 미리보기

실습으로 경험한 캠퍼스 라이프



2025년 5월 10일 학과 체험실과 우송 예술회관에서 고등학생 대상 전공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입시를 앞둔 예비 대학생들이 각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실습 환경을 체험함으로써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전에는 예술회관에서 학과별 전향 소개 및 면접 준비 팁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재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동아리 공연도 함께 이루어져 즐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오후에는 간호학과 전공 체험이 이어졌다. 간호학과 프로그램으로는 기본 간호학 실습을 통해 혈압 측정 방법과 비강 캐뉼라 사용법을 체험했고, 중환자실(ICU)과 소아집중치료실(PICU) 병실 구조와 장비 소개도 함께 진행되어 임상 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해부학 프로그램과 언어 전공 체험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었다. 이번 전공 체험은 예비 수험생들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형 체험으로 구성되어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전공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흥현경 기자 / 사진 출처: 최시연 학생

## 배움의 물결을 퍼뜨리다

### 찾아가는 교수 특강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권은옥 교수는 2025년 6월 5일·11일·18일, 세 차례에 걸쳐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수 특강을 실시했다. 권은옥 교수는 간호사로서 국내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강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의료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병원 간호사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기업, 학교, 연구소, 산업 현장 등 다양한 진로를 소개했다. 글로벌 진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미국, 캐나다, 중동, 호주 등에서 활동 중인 한국 간호사들의 사례와 해외 진출을 위한 면허 제도, 준비 과정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실습 및 시뮬레이션, 교수진, 졸업생 진로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병원, 연구소, 공무원, 해외 진출 등 졸업생 사례와 간호학과에 적합한 인재상에 대해 설명했다. 권 교수는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미 있는 직업”이며, “간호학과는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 김도윤 기자 / 사진 출처: 간호학과 사무실



# 충남여고 대학 탐방

혈압 측정부터 Q&A까지,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시간



2025년 6월 20일(목), 충남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방문해 실습 중심의 전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대학 탐방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은 학과 소개를 시작으로 기본 간호학 실습 체험, 중환자실(ICU) 및 소아 중환자실(PICU) 장비 소개, 재학생과의 Q&A 순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간호학과 재학생들과의 Q&A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더욱 활기찬 분위기 속에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간호사의 역할과 전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참여한 재학생들 또한 후배들에게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 한 참여 재학생은 “아동 간호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는 세심함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Q&A 활동을 통해 간호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며 저 역시 처음 간호학과에 입학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릴 수 있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대학 탐방은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간호학과 교육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 흥현경 기자 / 사진 출처: 최시연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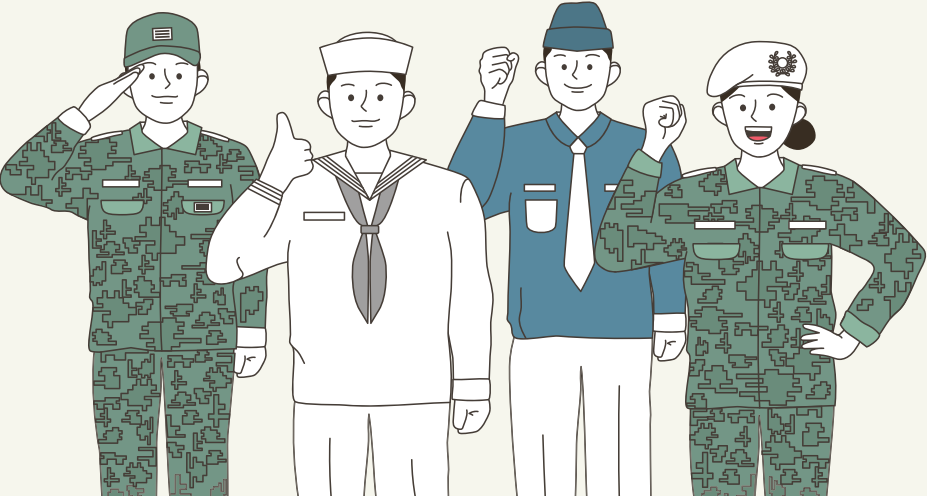
\_01

## 군 의료체계에 대하여, 이국종 교수 특강

### 이국종 국군 대전 병원장 특강

2025년 4월 4일 W1에서 우송대학교 보건 단대 학생들과 ROTC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국종 국군 대전 병원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국종 교수는 강연을 통해 군 병원의 조직 구조와 군 의료지원의 흐름, 의무병과 군의관, 군 간호사 간의 협업 체계를 설명했다. 특히 실전에서의 의료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군 간호사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이국종 교수는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통해 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달하며,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간호사의 진로 선택에 있어 군이라는 선택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강에 참여한 1학년 이경원 학생은 군 간호사의 직무와 군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 이은호 기자 / 사진 출처: 이경원 학생





\_02

## 시험기간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간식 이벤트

간호학과 시험 기간 간식 나눔 이벤트

2025년 4월 7일, 우송대학교 W10 학생회실에서 간호학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시험 기간 맞이 간식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우들의 중간고사 준비에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것으로, 간호학과 16대 학생회 '복지국'이 주관하였다. 간식으로는 바삭하고 달콤한 츄러스가 제공되었으며, 정오 12시부터 1시까지 1·2학년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배부가 이루어졌다.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실을 방문하여 츄러스를 받아 가며 서로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고, 학생회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잠시나마 긴장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복지국 측은 '작은 간식이지만 시험 기간 동안 지친 학우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계속 실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이벤트는 학과 내 연대감을 강화하고, 시험 기간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시험에 한창인 모든 간호학과 학우에게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기원한다.

◆ 흥현경 기자 / 사진 출처: 최혜진 학생



\_03

## 총장기 축구대회, 간호 & 철전 준우승 쾌거

간호학과 & 철도전기시스템학과의 끈끈한 팀워크



2024년 3월 15일 우송 간호의 날이 개최되었다. 매월 15일마다 학생회에서 간호 학우들에게 더 많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개최되는 '우송 간호의 날'은 복지국이 준비한 퀴즈를 풀고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우송 간호 학생들의 많은 기대 속에 개최되었으며 특히 24학번 신입생들은 입학 후 처음 경험하는 우송 간호의 날인 만큼 많은 기대를 안고 참여하였다. 이번 3월의 퀴즈는 '세계 보건기구의 명칭은?' 이었고 당첨자 4명은 공차기프티콘을 받았다. 향후 매달 15일에 개최될 우송 간호의 날에 어떤 퀴즈가 나올지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린다.

◆ 흥현경 기자 / 사진 출처: 백민지 학생

# 즐거운 대학  
탐구생활



\_04

## 간호학과가 쏘아 올린 한 입의 축제

우송제

2025년 5월 18일과 19일, 우송대학교 캠퍼스는 우송제를 맞아 활기찬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다. 각 학과와 동아리가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은 가운데, 간호학과 부스는 이색적인 메뉴와 열정 넘치는 운영으로 눈에 띄는 인기를 끌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번 축제를 위해 콘치즈 불닭볶음면과 꼬마 불닭 김밥, 그리고 레몬, 오렌지, 포도 맛의 에이드를 판매하는 푸드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매콤한 음식과 상큼한 음료 조합은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특히 불닭볶음면 위에 녹아든 고소한 콘치즈의 조화는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단순한 먹거리 판매를 넘어, 부스 운영을 맡은 간호학과 학생들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건네며 밝은 미소로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북돋웠다. 이번 부스는 간호학과 의 첫 야간 부스 운영으로, 학생들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스스로 책임진 행사였다. 평소 병원 실습과 이론 공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메뉴를 선정하고 재료를 준비하며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준 점도 인상적이다. 이번 우송제를 통해 간호학과는 맛과 정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학우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학과의 개성과 열정이 녹아든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최수현 기자 / 사진 출처: 이지원



## 헌혈, 생명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기부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



## 선후배가 함께한 따뜻한 동행, 버디버디

2025년 1학기 버디버디를 마무리하며

지난 6월 14일, 2025학년도 1학기 버디버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선후배 친목 프로그램으로,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시험공부 방법, 근처 맛집, 시간표 조정법 등 유용한 자료를 공유하는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보드게임카페 가기, 영화 보기 등의 친목 다지기 활동을 하며 학과 생활의 꿀팁을 전수하는 역할과 더불어 즐거운 학과 생활의 발판이 되었다. 버디버디 프로그램의 마지막 활동으로는 각 조가 함께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을 제작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등 단순한 학습 멘토링을 넘어 선후배 간 신뢰를 다지고 학과 내 따뜻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학기 버디버디를 마무리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김도윤 학생은 선배들이 먼저 다가와 주고 도와주어 부담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 이은호 기자 / 사진 출처: 복지국



2025년 6월 14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 복지국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헌혈 정보와 함께 카드뉴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카드뉴스는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은 헌혈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날이다. 이날은 안전한 혈액과 혈액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기적인 헌혈 참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다. 우송대학교 복지국은 매년 6월 14일이 전 세계 헌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임을 강조하며, 헌혈을 '작은 용기, 큰 생명'으로 표현해서 한 번의 헌혈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켰다. 또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가 바로 헌혈"이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헌혈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 생명을 살리는 헌혈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지원 기자 / 사진 출처: 복지국



\_01

## '우송냥아치'

Q. 동아리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동아리 '우송냥아치'는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동아리로, 2023년 3월에 창설된 비교적 신생 동아리입니다. 현재 20명의 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원진은 회장, 총무, 돌봄 팀장, 홍보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Q.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동아리의 주요 활동은 교내에서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고양이들의 종류는 길에서 태어난 고양이들과 펫샵에서 기르던 고양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정에서 버려져 사냥할 수 없게 되어 굶주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제공하며,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Q. 길냥이들을 돌보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동아리가 창설되기 전부터 동아리 지도교수님이신 이현주 교수님께서 알고 있던 고양이 '설기'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설기는 나이가 많은 노묘라서 치료를 위해 포획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설기에게는 기존보다 영양가가 풍부한 사료를 주며 돌봤고, 설기도 그 마음을 알았는지, 여전히 2025년 4월 30일에도 W5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정나윤 기자 / 사진 출처: 권서현 학생



## '치매파트너즈'



## 절주 동아리 '주인'

**Q. 절주 동아리는 어떤 목적과 취지로 운영되나요?**

A. 우리 동아리는 음주 문화 속에서 간과될 수 있는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음주 습관을 지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멀리하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취지로 활동하고 있어요.

**Q. 절주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A.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캠페인과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축제 기간에는 무알코올 시음회를 열어,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맛있는 음료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절주 관련 포스터 제작, SNS 콘텐츠 운영, 절주 교육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Q.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A. 학생들이 음주를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조절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무알코올 시음회나 캠페인을 통해 "이런 선택도 가능하구나" 하는 인식의 전환을 보일 때 뿌듯함을 느껴요.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 정나윤 기자 / 사진 출처: 김호성 학생



**Q. 치매 파트너즈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A. 치매 파트너즈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치매 어르신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공감과 연대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Q. 치매 파트너즈에서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나요?**

A. 저희는 대전 내 요양원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을 방문해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벗 되어드리기, 간단한 인지 자극 놀이, 공예 활동 등을 함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같은 외부 활동도 병행하면서 지역 사회와 학교 구성원들에게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Q. 활동들이 참여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A. 치매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활동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편견이 사라지고,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에게는 예비 보건 의료인으로서의 태도와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 정나윤 기자 / 사진 출처: 이서연 학생



\_01

##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첫 발걸음

### 1학년 신입생 Sol-Sup

202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Sol-Sup이 진행되었다. Sol-Sup 프로그램은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적응 프로그램이다. 1일 차인 2월 24일 월요일은 간호학과와 16대 학생회 '여울'의 주관하에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었다. 교수 소개 및 축사, 학과와 동아리 소개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소개 순서로 이루어졌다. 2월 25일 화요일에는 우송예술회관에서 ROTC, GAEP 등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31대 총학생회 인사 및 교수들의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었고, 이후 W6 교양교육관에서 영어 레벨 테스트와 오리엔테이션이 실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신입생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신입생들이 한층 더 성장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이은호 기자 / 사진 출처: 김윤서 학생





\_02

## 함께 만들어가는 학과 문화

### 간호학과 교학 간담회

2025년 3월 12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학생회, 교수진, 조교가 한자리에 모여 학교생활 규칙을 논의하는 교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중심의 원활한 학과 운영과 학업 및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학과 사무실 이용 방법, 상담 예약 절차, 생활 수칙 등과 관련된 안내 및 협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공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과 운영 규칙이 새롭게 정비되었고, 간호학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교학 간담회를 통해 학생, 교수진, 조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과 문화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학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학과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 이지원 기자 / 사진 출처: 최예진 학생

\_03

## Building a Study Habit Formation

VS(Veritas stadium) Program Starts on  
March 2025



March 10 marked the beginning of a new voluntary learning initiative through self-study under the VS(Veritas stadium) Program. This method has been introduced as a way for students to develop consistent and effective study habits, while also setting clear academic goals outside of the classroom and without direct supervision.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must commit to at least three days of self-study per week, with the Student Council officers for the Academic Bureau monitoring and recording their involvement. By encouraging a meaningful study routine, the program aims to improv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personal growth. Additionally, the project motivates students by offering rewards or gifts, which further inspire participants to stay committed to their goals. Through their initiative in deciding what and how to learn, these voluntary self-study efforts can serve as a powerful tool, allowing students to show their support for the VS(Veritas stadium) Program. This program primarily seeks to foster self-discipline, enhance concentration, and help students maximize the value of their study hours on campus.

◆ Doyun Kim reporter / Photo: Doyun Kim



\_04

## 새내기들의 첫 만남, 소통의 시작

### 1학년 전체미팅

2025년 3월 19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전체 학생들은 김지순 교수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새내기들이 겪고 있는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지순 교수는 학생들에게 새내기 생활과 공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을 듣고자 했다. 학생들은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앞으로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서로 지원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수현 기자 / 사진 출처: 서유리 학생



\_05

## 서로를 알아가는 첫걸음

### 간호학과 워크숍

2025년 3월 4일,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체육관(W11)에서 MT를 대체하는 간호학과 워크숍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MT 행사가 없어 아쉬워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과 내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과 2, 3학년 재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교수진과 학생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안전 교육과 준비 운동을 진행한 뒤, 간호학과 워크숍의 전통 행사인 '둥글게 둥글게 게임'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다. 학생들은 15명씩 총 5개 조로 나뉘어 협동 훌라후프, O/X 퀴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랜덤플레이 댄스, 여왕 피구, 미션 달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함께하며 협동심을 길렀다. 게임 종료 후에는 전체 1등, 응원상, 경품 추첨으로 세 가지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상품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기 및 선후배 간의 친목이 돈독해졌으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우송 간호'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길 기대한다.

◆ 흥현경 기자 / 사진 출처: 고지수 학생

\_06

## Bridging Worlds, Building Futures

### 2025 Nursing All-Senior Meeting



On April 7, the Department of Nursing held an all-senior meeting in the small auditorium of the W1 building. The event was attended by all fourth-year nursing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and was organized to share academic updat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y reports. The program included presentations from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overseas training programs. They introduced the institutions they visited, outlined their training experiences, and discussed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s and educational systems. Following this, student clubs within the department presented summaries of their activities from the previous semester. In addition, the student council introduced its departmental structure, including each division's members and responsibilities. Each section reported on its main activities and goals for the current semester. Faculty members also participated in the session and provided comments on the student presentations. The meeting provided a structured opportunity for information-sharing and departmental engagement.

◆ Doyun Kim reporter / Photo: Student council



\_07

## Carrying Forward the Light of Care

### 15<sup>th</sup> Nightingale Pledge Ceremony Held for Nursing Students

The 15<sup>th</sup> Nightingale Pledge Ceremony was held at 11 a.m., lasting approximately one hour. The event was organized for nursing students to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spirit of Florence Nightingale as future nurses. The ceremony began with the national anthem and an introduction of guests, including University President Deokseong Oh, Vice President Kohwan Jin, Dean Jaejong Byun of the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Daejeon Nurses Association President Soonseon Park, faculty members, 2022 graduate Hyeeyeon Lee, and alumni Dohyun Kim (13th class), Yumin Won, and Jiwon Lee. President Oh delivered remarks, referencing the historical contributions of foreign nurses in Korea and emphasizing the ongoing relevance of Nightingale's values. The event continued with a candle-lighting ceremony and the recitation of the Nightingale Pledge by the students. Student council president Yunseo Kim read a letter to the third-year students, followed by a response from her father. President Park of the Daejeon Nurses Association gave an address, congratulating the students and discussing the legislative efforts for the Nursing Act. The ceremony concluded with a donation presentation, a congratulatory video, the university anthem, and a group photo. Afterwards, a separate meeting was held with faculty members and parents.

◆ Doyun Kim reporter / Photo: Jiwon Lee

# 생명을 살피는 눈, 마음을 기울이는 태도

생명 존중 특강 ‘보고 듣고 말하기’



# 간호 선배에게 듣는 진짜 이야기

졸업생 네트워크

‘졸업생 네트워크’가 4월 22일, 4월 30일 이틀에 걸쳐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졸업생 네트워크’는 우송대학교를 졸업한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재학생들을 위한 강연과 대화를 나누며, 실질적인 학습 전략과 취업 준비 노하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22일에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2월에 졸업하여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혜린 간호사가 강의를 진행했고, 30일에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년 2월에 졸업하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정수희 간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핵심 술기, 환자 감시장치 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법 등 임상 실습에서 관찰해야 할 핵심 요소들부터 임상 현장에서 정직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경험담까지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병원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단순한 스펙보다 임상실습에서의 태도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되었다. 실제로 실습에 대한 관심과 성실함이 채용 면접과 신입 간호사로서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조언은 재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졸업생 네트워크’는 단순한 멘토링을 넘어, 간호학과 학생들이 진로와 학업, 그리고 현장 실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지식 공유의 플랫폼이다. 이 졸업생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간호학과 내 세대 간 학습의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은호 기자 / 사진 출처: 간호학과 사무실



2025년 5월 27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특강 ‘보고 듣고 말하기’가 진행되었다. 본 특강은 대전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의 자살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전문 강사는 자살 경고 신호가 97%인 것에 반해 신호의 인지율은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살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여 학생들은 자살 사망자가 보낸 다양한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에 대해 배우고, 공감적 듣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도와주는 대화 방식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또한 자살 예방 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영상에 등장한 다양한 위험 신호들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간호학과 2학년 이소찬 학생은 “이번 특강으로 평소에는 놓치기 쉬운 행동들도 자살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강을 통해 생명윤리 의식을 함양해 나갈 계획이다.

◆ 이지원 기자 / 사진 출처: 이지원

제 20호 2025년 1학기(2025.03.04 ~ 2025.08.31)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